

부활 제6주일

기도서 303면 (다해)

제1독서 : 사도 15, 1-2, 22-29
제2독서 : 묵시 21, 10-14, 22-23
복음 : 요한 14, 23-29

순정이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떠났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요한 15, 27)

“어머니의 마음은 신앙인의 인식처”

공동체는 '운명과 삶을 함께하는 몸'이며 집합체는 '많은 것들이 모여서 이룬 덩어리'라고 사전은 정의한다.

공동체는 아름답고 성스럽다. 진정한 에너지는 공동체 안에서만 생성된다. 인간들은 한결같이 공동체를 회귀해 왔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만 기쁨과 행복, 나가서는 성장을 확인해 왔다. 공동체의 성원들은 한 곳을 같이 바라보는 사람들이며 하나의 소망을 같이 나누어 비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공동체가 운영되는 비결은 자율과 헌신이다. 그래서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

집합체는 전혀 양상이 다르다. 무질서와 이권과 책임전가가 판을 꾸민다. 에너지는 분산되며 연대의식의 결여로 소외현상이 두드러진다. 물론 외적으로는 '하나(덩어리)'를 이루고 있지만 모래성파 같다. 따라서 집합체의 통솔기능은 오로지 물리적인 방법과 양해가 없는 법이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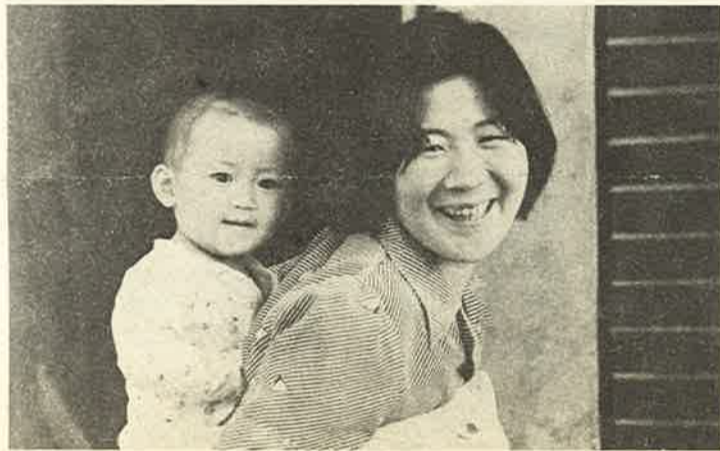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통제되는 집합체의 양상이었기에 예수께서는 율법의 폐지와 인간해방을 선언하셨으며 공동체로의 전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12제자들도 집합체의 모습에 다름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수난에 동참할 수 없었고 산산히 흩어졌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부활을 체험하고 난 뒤 그들은 공동체를 이룬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난 초대 교회의 모습은 바로 공동체였다. 실제로 미사성체는 집합체를 공동체로 환원시키는 훈련의 장이며 일치와 나눔의 신비가 영속되는 현실인 것이다. 교회가 전통적으

로 미사참석을 강조하는 까닭을 잊어서는 안된다.

계절의 여왕인 5월은 성모성월이며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재 조명하면서 집합체와 공동체의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 나의 가정과 직장, 교회와 이 사

님과 함께하는 곳은 어디든지 에덴 동산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외없이 실락원이 되고 만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곳의 다름이 아니다.

현대인들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 그래서 거칠고 성급하고 방황하는 것이 일상이다.



◇ 운명과 삶을 함께 하는 「공동체」 생활

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우리라는 말은 공동체가 아니라 집합체이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다.

현대인들에게는 격광을 피해서 안주할 포구가 없다. 모성(母性)의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특별히 성모성월을 의미있게 보내고 성가정의 모범을 본받도록 하는 것은 성모님이야말로 신앙인의 인식처이며 포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써 거칠은 숨결을 고르고 움켜쥔 주먹을 펴도록 하기 위함이다. 진정한 공동체는 너와 나 사이에 주님을 영접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주

아이들의 가솔은 집합체로 부터의 탈출 현상이다. 부녀자들의 가솔도 마찬가지다. 노사분규라든지 학생소요 현상도 집합체를 공동체로 만들자는 외침인 것이다. 이 시대의 징표 안에서 신앙인의 몫을 헤아려야 한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일치를 이루고 “나와 함께 모아 들이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셨다. 집합체 안에서는 상처만이 있을 뿐이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된다. “자 일어나 가자” 하시어 주님의 부르심에 다 같이 응답하자. “예”라고.

마음의 창 열고 가족과 사랑의 대화를



양상열 (암브로시오)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하여서는 부모 노릇하는 법을 따로 공부해야만 되는 세상이 되었다. 돈벌어 오는 바깥일에 매달리다가 때때로 자리를 함께하는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야 한다는 상투어나 반복하는 아버지는 낙제생이다. 통지표를 받아들고 안달을 하며 경쟁대열로 몰아대는 성적 제1주의의 극성 엄마도 역시 낙제생 엄마다.

아버지가 보여주던 가부장적 권위와 관대한 부성, 어머니의 맹목적이고도 자기희생적인 모성에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변천을 거듭해온 현대사회 속에 놓여진 핵가정을 관리하기에는 처음부터 부적절할 수 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부자간의 인륜에 변함이 생긴 것이 아니라 가정이 존립하는 사회환경과 자녀들이 극복해야 할 교육환경이 구조적인 변혁을 하였다는 것인데 우리를 부모가 적용하지 못하고 어마무제하는 사이 어느덧 아이들은 양에 차지 않는 기성인으로 부모품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 혹은 학교와의 유기적인 제휴가 강조되지만 이것만으로 우등생 부모가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내 나름의 부모학원칙을 밝혀보고자 한다.

첫째 부모는 우선 인격적 존경을 받아야 한다. 직장, 교회와 가정생활에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주일 미사 참례를 빼고나면 본당사업

이나 자선활동 그 밖에 돈을 힘드는 일은 일체 모른채 아버지와 고스톱으로 자정을 남고 돌아와 헛기침이나 하는 지는 존경을 받을 수 없다.

둘째 자녀를 독자적 인격체로 인정해야 한다. 자식은 이룩 못한 부모의 뜻을 대신 이룩하거나 부모님 목에 힘을 넣어 위하여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고유의 독자 유일적인 인생을 위하여 창조계획에 따라 태어났다는 리에 승복해야 한다.

셋째 자녀를 위하여 희생적 삶을 살아야 한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 그들을 위하여 고하고 희생한다는 것은 다르다. 자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부모가 여유 있는 환경에서 키우려 부모보다 더 적극적인 효도를 사례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끝으로 부모는 성실한 상담이 되어야 한다. 앓는 속도 모르고 웅은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구와도 말 못할 고민, 불안 초조 꿈들을 함께 털어놓고 더불어 결해가는 유능한 카운슬러가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부모학의 총론을 약해 보았지만 이것들은 결코 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튼튼한 자녀가 되려는 효도의 노에 뒤지지 않게 훌륭한 부모 되어 보겠다는 부모로서의 노력 필요할 것이다.

< 변호사 / 덕진천주교회 >

가정은 작은 교회

아내된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된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써 바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여 기르십시오 (에페소 5, 21~6, 4).

너는 네 아비가 늙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을 동안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가 설혹 노망을 부리더라도 잘 참아받고, 네가 젊고 힘있다고 해서 그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네가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의 효도를 기억하시겠고 네 죄는 얼음이 햇볕에 녹듯이 스러질 것이다. (집회서 3, 12~15)

소리

살 권리는 있지만 죽을 권리는 없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생을 살면서 수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그 해답을 찾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도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럼 「자살」이란 무엇인가? 그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지만 그 의미는 시간과 환경 위치 등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다. 키에르케골은 죽음에 이르는 장 큰 병은 '절망'이라 말했다. 절망이란 가난이 싫어서 독약을 쓴 어린 4차매의 사연이나 지난 민주화를 외치며 분신자살한 을교대 南泰賢군의 사건 등등 부분의 자살은 더이상 살아서 버리고 괴로움을 받느니 차라리 죽음으로 자기의 생각과 고통을 면하고 마감지으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자살은 자살로써 모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주는 충격과 주위의 반응으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킨다. 자는 말이 없는데 그 죽음을 알고 알가알부하며 때론 시신의 리문제까지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다. 서울교대 남태賢군의 시신을 위한 유가족과 학생간의 의견이 대립하게 대립, 마침내는 학교측이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

한 것이다. 짧은 삶을 끝내며 죽어간 南군의 유해를 고향에 안장하려는 유가족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으로 얼룩져 있고 같이 공부하며 민주화를 외쳤던 교우를 학교에 안장 그 뜻을 기리려는 학생측의 생각에는 누구도 옳다 그르다할 처지가 못되지만 시신을 중간에 두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일치 시키지 못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더더욱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이렇듯 새로운 고통을 파생시키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땅의 수많은 자살을 닦하기 전에 그 원인을 찾아 새로운 자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할일이라는데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날로 더해가는 풍요의 불균형, 퇴보하는 민주화의 걸음, 열기는 뜨겁지만 방법은 좀체로 찾을 수 없는 통일문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잉태케 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절망해선 안되고 더더욱 자살은 안된다. 인간에게 살권리가 있지 죽을 권리는 없는 것이다. 살면서 그 절망을 극복하는 노력이 바로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춘계 사제총회

— 해성학교 이전, 구 성모병원 매각 —

지난 4월 20일 전주교구 춘계 사제총회가 예정대로 열렸다. 주교님이 계시지 않아 조금은 허전하였지만 그래도 국내 거주 전주교구 모든 사제들이 참석하여 교구의 사목, 교육, 관리, 홍보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받고, 관심 사항을 논의 하였다. 이날 보고 과정에서 사목국은 '반모임' 활성화를 특히 강조하였고, 교육국은 중등부 교리와 10월 1일과 3일로 예정된 전주교구

어린이 청소년 성체대회, 홍보국은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적극 홍보에 역점을 둘 것을 계획 발표하였다. 관리국에서는 요즘 특히 관심이 되고 있는 해성 중·고교의 삼천동 이전 문제, 구 성모병원의 매각에 관해 보고하면서 부지매입을 위한 기도와 착오없는 전동상가 매각을 위해 적극 협조 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특히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제에게 재정적 자문을 줄

수 있는 5명 정도의 평신도를 구성하여 토지매각 등, 교구의 재산 전반에 관한 자문을 듣기로 하였는데... 이런 착상이야말로 민주를 사는 교회, 평신도들이 적극 참여하는 바람직한 교회를 향한 일보라 할 수 있겠다. 사목은 사제, 운영은 평신도를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에 서광이 비쳐오는 것만 같다. 가슴 뿌듯한 일이다. 물론, 총괄적으로 사제의 통솔을 받아야 할 것이다.



△ 해성학교에서 있었던 성소주일 행사

■ 사목회 임원연수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6회에 걸쳐 성체성년의 해를 맞아 각 본당 사목위원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실시하였다. 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체신심 생활과 교회 전례생활, 한마음 한몸 운동 및 신회복 등을 중점으로 실시된 이 연수회에 참여한 사목위원은 총 457명이다.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주관으로 실

시된 이 연수회를 통해 각 본당 공동체 안에서 사목위원들이 해야 할 과제가 참으로 많다. 명예뿐인 사목위원이 아닌 구체적인 나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주역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성소주일 행사

사제성소와 수도성소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성소증가를 위해 교회가 특별히 마련한 성소주일(4

월16일) 이날 행사는 해성중·고등학교 강당에서 35개 본당 중고 학생 70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신학교 및 각 수도회 소개 전시회를 비롯 성소에 대한 강의, 백일장, 사제대회가 있었다. 끝으로 교구장 직무대행 김환철 신부의 파견미사로 끝을 맺었다. 다음해 성소주일에는 중고생만을 위한 성소행사를 탈피, 일반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획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들 말했다.

■ 시복시성·성지개발 봉헌서 내역

1988년 9월~4월 15일 까지 봉헌서 총액 ₩ 29,125,200 (430건) 김추기경님 봉헌 ₩ 50,000,000 독일 마인쯔 ₩ 18,000,000 로마교황청 ₩ 36,224,000 현 봉헌금 총액 ₩ 133,349,200

숲 정 이 산책



언론의 소원은 분단 고착인가?

◇...역사의 時針이 맹렬한 속도로 후퇴하고 있는 느낌. 마치 30년 전 이승만 정권 말기의 공포정치(?)를 연상케. 공안합수부 설치에 이어 각계 민주 인사투옥과 공공시설 파괴범(?)에 대한 총기사용 등 盧정권의 시대, 무시적 발상들이 한냉기류를 형성. 「정권말기 최후발악」이라, 불안을 느끼다 못해 노망(老妄)드신 모양인데 이런식의 노망정치 계속하다간 정말 노망(盧妄)정치가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정부의 승인이 없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온몸을 독재정권에 부딪쳐 민주화의 길을 열었고 통일에의 순수한 열정으로 訪北을 결행한 文



목사를 「미친놈」「정신병자」로 미친듯이 매도한 것이 「민주화시대에 거듭난」 이땅의 언론의 모습. 본질은 외면하고 정부측의 주장과

논리로 文목사 비난하는데 총괄기. 「한국언론의 소원은 분단고착」인가. ◇...「전두환씨는 아랫사람에게는 한없이 자상한 오늘의 「지도자적 자질」을 수도생활보다도 엄격하고 규칙적인 육군사관학교에서 갈고 닦았다.」 조선일보 80년3월28일자 사설. 5월 광주항쟁 진압군부에 대해 그해 5월28일자 사설은 잔인한 살육자들에게 「군의 노고를 잊지 않는다」고 감사. 「민족의 정론지」 깎대기 쓰고 권력의 떡고물에만 연연하고 있는 조선일보.

위상양 내과 의원

위상양 (프란치스코)
김병희 (골라라)

전주시 고사동2가 1-13 (완주농협·우신호텔앞)
☎ 병원 4-1225
☎ 자택 75-0034

동양한의원

한 의사 민 병 부 (스테파노)

전주시 전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 한의원 84-2303
☎ 자택 84-2863

믿음과 정성을 다하는

광명안경원

박종락 (조화서베드로)
안화동 (프리스가)

전주오거리 (신) 서강정형외과 앞
(구) 나정형외과
☎ 74-1123.3-6709

조명기구전문판매점 (교우특별우대)

- 특수조명
- 누전책임수리
- 장식무늬벨
- 각종조명기구
- 가정용전화기구
- 전기공사자료 제작도판매

▲ 전주백화점 건너편

광신 조명전업사

박상기 (안드레아)
장영자 (세시리아)
☎ 84-4753.84-4566

한복

- * 약혼
- * 무용
- * 파티
- * 결혼

고려주단

전주시 고사동 (신촌예식장골목)
전 광원 (마르코)
김삼례 (소피아)
☎ 6-1902

할아버지의 눈물

— 노송성당 관리인 김요셉씨 —



△ 김요셉 할아버지

현재 全州 노송성당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 김요셉 할아버지. 그는 한사코 속명과 나이 밝히기를 거부했다. "오래 살아 나이만 먹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천주님 덕에 이렇게 복받고 사니 그저 요셉이면 됐지요. 본 이름은 알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이는 성당 사무실 옆 그의 비좁은 방 안에는 뜻밖으로 낡은 우산들이 주렁주렁 걸려있다. 이 우산들은 '주님과 교우들로 부터 받은 그간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김요셉씨의 작은 정성들.

갑자기 비가 오면 고스란히 비를 맞고 돌아가야 하는 교우들에게 하나씩 우산을 나눠 주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째다.

대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김요셉씨와 주님의 인연도 삶이 가장 고달프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지금 서른 세살된 아들이 생후 8개월 됐을 무렵 아내가 25세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는 세 마지기를 주고 데려온 가난한 시골집 처녀와 결혼, 남매를 낳고 재미있게 살아가던 몇 년간은 김씨의 생애에 있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아내의 죽음은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았다.

우선 할아버지 혼자로서는 세살난 어린 딸과 8개월된 핏덩이를 키우며 생業인 우동집을 이끌어 갈 방도가 없었고, 아이들이 최우선이었던 그로선 재혼이란 말도 당치 않았다.



참으로 앞이 캄캄하기만 하던 그때 구원처럼 다가온 것은 신앙이었다. 그는 믿음이라도 있으면 버티나갈 수 있을 듯 싶어 한 아이는 걸리고 한 아이는 업은 채 집 가까이 있던 中央성당을 찾았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주님과의 인연은 김요셉씨에게 언제나 든든한 의지가 돼 주었다. 살림은 갈 수록 곤궁해지고 몇 번이고 죽음을 결심했던 절박한 순간들...

지금도 김씨는 당시 中央성당

주임이셨던 故 김재덕 주교님께서 자신의 누추한 집을 찾아주셨던 때의 감격을 잊지 못한다.

김씨의 지독한 궁핍을 목격한 김신부는 그에게 中央성당 관리인 자리를 제공했고 아울러 그분의 방문과 강복이 있는 후로 김요셉씨에게는 모든 일이 힘겨워도 만사형통으로만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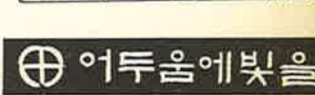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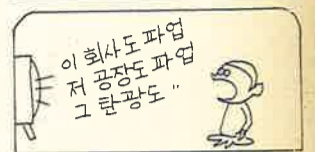
현재의 노송성당 관리인직을 맡게 된 것은 4년 전의 일. 머지않아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에 여생을 의탁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하는 그에게는 자랑스런 따님 마리루시 수녀가 있다.

어머니 없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속 한번 상해준 일 없는 어진 딸은 전주 교대를 나와 교사로 근무하다 83년 수녀원에 입회하였다.

지난 무학절에 보내 준 수녀 딸의 카드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맺힌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은 모두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준 주님이 계시니까요..."

요십이 (821) 김병오



어두움에 빛을

교구 소식

1. 관구성직자 체전: 5월3일(수) 광주가톨릭 대학
2. 혼인강좌: 30(일) 오전9시30분 전주가톨릭센터 참가비5,000원
3. 중등부 교사학교: 5월12일(금) 오후1시 장소-전동천주교회 대강-중등부 교리교사 참가비-1인당 1,000원 내용-교재연수(각 학년별) 마리아론, 레크레이션 등
4. 성모의 푸른군대대회: 5월4일(목) 덕진천주교회 오전10시-오후 4시 강사-서용복 신부님 준비물-미사도구, 묵주, 도시락지참
5. 사제를 위한 5월 수도자 및 평신도 교구다락방모임: 일시-5월7일(일) 오후2시 장소-가톨릭센터 성당
6. 성모의 기사회 모임: 5월6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젊은이)-저녁미사후 효자성당
7. 사회복지 월례미사: 5월1일 오전10시30분 장소-사회복지회관
8. 해외사제 주소:

김순태 신부님 Rev. Soon TAE Kim Francis House 2226 Maryland Ave Baltimore MD, 21218 U.S.A Tel 301-235-2588	양경배 신부 Scuola Sacerdotale al vivaio Viale S. Francesco d'assisi 4 50064 Incisa Valdarno (Fi) ITALIA
---	--
9. 가톨릭방송안내: 5월1일부터 CBS 매일밤 11시45분-12시 「오늘을 보내며」 CBS 월요일 아침8시 「CBS 칼럼」 MBC 월요일 아침6시50분 「아침을 달린다-명상」 * 신자분들의 많은 청취를 바랍니다.
10.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5월 1일 7시 30분 가톨릭센터 *축! 영명: 5월 3일 (성필립보, 야고보), 성민호, 김동준, 박병준 신부 축하합니다.



全州를 중심으로한 全州지방은 초창기 가톨릭이 뿌리를 내렸고 숭한 순교의 피를 뿌림으로써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손색이 없는 지역이다.

2백년이 넘는 한국 가톨릭교회사에서 全北이 낳은 선지자들이 흘린 순교의 피는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그것은 7인의 성인을 내는 연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 연원을 거슬러 오르면 우리는 한국교회사에 찬연히 빛을 발하는 柳恒儉일가와 마주치게 된다.

조선시대 천주교 수난의 역사가 全州에서 시작되고 尹持忠, 權尙然이 순교한 辛亥 珍山사건이 조선 최초의 순교사로서 역사에 길이 남게되고 있지만 辛酉교난에 순교한 전라도의 천주교지도자 柳恒儉은 사실 막중한 역사 종교적 위치를 가지면서도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동정녀 李루갈다의 시아버지로서 柳恒儉의 일생은 우리 신자들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므로 누차 얘기하지는 않겠으나 그의

생가터가 아무 돌보는 이 없이 버려져 있다함은 全州교구신자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完州郡 伊西面 南溪里 草南부락, 이곳은 한국천주교의 요람이라 할 수 있다.

호남고속도로 全州인터체인지를 끼고 남쪽으로 들어선 이동네는 알막한 야산에 둘러싸여 있다. 멀리 남동쪽으로 모악산의 연봉이 보이고 마을앞의 널찍한 들판은 이 마을을 부촌스럽게 하고 있다. 40여가구가 모여사는 이 마을 중앙에 柳恒儉의 생가가 있고 마을 옆편의 야산엔 그의 묘로 추정되는 묘소도 있다.

첫 순교자 유항검 생가터-초남이



△ 치명된 방죽으로 되어버렸던 현재 초남이 생가

이곳은 그가 생을 마칠때까지 假聖職團까지 조직하여 전교에 힘쓰던 곳이요 동생(觀儉)과 아들부부 등 일가족이 함께 치명된 뒤 집터는 방죽을 파버리는 수도도 당한다.

지금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이곳엔 그치지 않고 신자들의 참배는 있으나 허름한 안내판 하나기 고작이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이 마을엔 교우가 하나도 없다. 2백년 넘게 西學배척의 뿌리가 살아 있음인가. 흔적만 남은 草南부락의 성역화가 절실히 진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꾸르실료운동도입20주년 기념 전주교구 올드레아 때: 5월12일(금) 10시-17시 곳: 전주해성 학교강당

일본명상

누가 네 편에 있든 혹 반대편에 있든지 걱정 말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천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록 행하고 힘써라. 너의 좋은 양심을 보존하라. 그러면 천주께서 도와 주시고자 하시는데, 어떤 사람의 사악이라도 그를 해하지 못하리라.

토마스 아 켈피스

명동피부과의원

서범석 한의원

院長 徐範錫 (박세밀리안 콜베)
전주시 덕진동1가 1262-16 (전북대학교앞 덕진신용협동조합앞)
☎ 72-2885.75-9533

※일요일은 휴진

경기장 농협덕진지점

동산촌

서범석 한의원

진로유통 참스 (수제전문 브랜드) 특약점

두울·鮮京커텐, 스완카페트 실키브라인드·혼수예품

나비커텐

정 걸 (알베르도)
김 강 (엘리사벳)
중앙동 가구점길 (에이스침대양)
☎ 82-2226.86-5611

의료보험조합 지정병원

신일균 신경외과의원

■부설: 물리치료실

원장 신일균 (아오스딩)
윤귀자 (로사리아)
병원 84-7266 집 6-6417
관동로 전주백화점 ← 다가교중간

